

전남도, 돼지열병에 시까지 발병시 끝장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지정 이동통제·소독 반복 발생 72농가에 동절기 오리 휴지기제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전남도가 겨울철 집중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방역과 예찰을 실시한다.

전남은 지난 겨울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4~2015년

107건, 2016~2017년 36건, 2017~2018년 11건 등 매년 동절기에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AI 없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22개 시·군에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종오리농장에 대해 매주 점검 및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AI 발생위험이 높은 9개 시·군 24개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12월부

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이동통제와 소독을 펼친다.

또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밀집지역 72 농가 133만수에 대해서는 동절기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차단을 위해 195대의 방제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10개소와 144곳의 기금농가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오리농장 출입구에서 울타리 둘레에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구축하고 철새도래지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선제적 검사를 추진하고 야생조류 분변검사도 당초 260건에서 860건으로 확대한다.

한편 전남지역 오리 사육은 270호에서 500만수로 전국 49%를 차지하고, 닭은 383호에서 2578만수를 사육해 전국 13%를 차지한다.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4~2015년 107건 발생에 607억원, 2016~2017년 36건 318억원, 2017~2018년 11건 203억원에 이른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AI가 지난해에는 철저한 방역과 농가들의 자체 소독 강화 등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동구, 하반기 구정혁신 아이디어 주제 공모

광주 동구가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구정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정에 반영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2020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동구!’를 주제로 쓰레기 감량 아이디어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다.

접수된 정책제안은 창의성·경제성 등을 심사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포상 및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구 서창들녘 역사축제, 도심속 힐링 축제 자리매김

광주 서구 서창들녘 역사축제가 도심속 힐링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1일부터 3일간 극락교 친수공원에서 펼쳐진 영산강 서창들녘 역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5회째 맞는 이번 역사축제는 역사발로 떠나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사랑, 나눔, 추억 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광주의 대표 자연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번 축제는 영산강과 서창들녘의 생태환경을 사랑하는 축제임을 알리는 ‘생태환경사랑 자연가 대행진’을 시작으로 역사계 운송은 날 ‘황금역새찾기’, 생태배움터 나야 생태박사, 역사축제와 함께하는 갈빛 나들이, 환경사랑 자연거점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남구, 배움의 樂 제5회 평생학습 축제 연다

“배움은 또 다른 즐거움,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제5회 남구 평생학습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 남구는 평생학습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6일 봉선동 유안근린공원에서 제5회 남구 평생학습 축제를 연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배움을 즐기는 순간, 꿈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학습 동아리, 주민 등 약 1,0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축제 현장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식전 행사로 난타 공연을 비롯해 타이거 매직 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북구 중흥2동, 제4회 간뎃골영화제 개최

광주 북구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평화프라자 앞 주차장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총회 ‘제4회 간뎃골영화제’ 대동 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흥2동 간뎃골영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문수)와 사회적 기업 필름메이저가 주관해 열리는 ‘간뎃골 영화제’는 광주 지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는 마을영화제이다.

이번에 네 번째로 제작된 마을영화인 ‘기억 저편’은 ‘중흥동에 재개발 바람이 불자 차매에 걸린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자식들이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독립영화감독인 윤수안 감독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지난 6월부터 영화 기초이론, 연기수업 등 교육과 약 1개월간의 촬영 끝에 탄생했다.

광산구,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안전교육 실시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어린이집 원장과 회계업무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운영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

교육 참석자들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회계처리절차 △시설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등을 배우고, 질의응답으로 궁금한 사항을 해소했다.

임형택 기자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오늘 DJ센터서 개막

20일까지 4일간 시음행사·이색 차문화 제공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센터에서 차와 차문화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

제13회 광주국제차(茶)문화전시회를 열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가을을 맞아 지역

민들에게 다양한 차 시음행사와 이색적인 차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에는 강진·보성·장흥·정읍·하동 등 국내 주요 명차와 중국·대만·영국·일본 등 해외 명차를 대거 선보인다.

‘대한민국차(茶)품평대회 수상 업체 홍보관’, ‘광주 Tea & Art’ 등의 특별관을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다도(茶道) 등 보다 친근한 차(茶)생활을 선보인다.

경주·여주·광주 등 전국 도예가들이 직접 만든 다구, 다기 등 다양한 공예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 차와 곁들이는 다식도 선보인다.

전시장 내 특설무대에서는 광주 선고차인 한다례와 함께 (사)초의차문화연구원, (사)예지원,

해명전통다례교육원, 한국차문화협회, 성균관여성유도회, (사)아시아차문화연구원 등 차인(茶人) 단체의 다례(茶禮) 시연이 펼쳐진다.

센터는 관람객에게 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유의 우리나라 차(茶) 예절과 차 문화를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의 입장료는 5000원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차문화와 다구, 다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광주국제차문화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세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 광주에 모인다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 오는 23일 DJ센터서

세계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인다.

제1회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이 오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인간, AI, 산업이 함께하는 혁

신사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광주시와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이 주최하고 산학연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미래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산업

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제임스 랜디 몰릭 미국 뉴욕주립대학장이 한다.

제임스 랜디 몰릭 뉴욕주립대학장은 2016년 세기의 주목을 받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국 보다 20년 앞서 IBM에서 딥 블루 컴퓨터 체스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지휘하는 등 반도체 분야 세계적 전문가다.

이어 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대표, 박정일 한양대 교수, 박의진 (주)아크릴 대표가 각각 ‘인공지능 트렌드 변화’, ‘인공지능 미래와 삶의 변화’, ‘인공지능 산업 임팩트’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정송 KAIST AI 대학원장, 이용훈 KAIST 교수, 임혁 GIST AI 연구소장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성공과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인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험료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